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인 숙* · 박 재 연**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Lee, Insuk* · Park, Jaeye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communit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f 300 parents under the age of 65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Gyeongsangbuk-do.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mos 25.0, and SPSS Process Macro v3.4, and the direct, mediating, and modulating effect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were analyzed. **[Result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ental health.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se resiliencies on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nseling implications to support the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derived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levels.

Key Words: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mental health,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community resilienc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 청소년정신건강연구소 연구위원
Researcher, Department of Counseling,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상담학과 부교수, 청소년정신건강연구소장
(jaeyeonpark@daeg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Department of Counseling, Daegu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장애란 인지 발달,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의 지연이나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또래에 맞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또한 인지, 사회성, 운동, 언어 등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서 실생활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해 발달장애인을 크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수는 2022년 기준 2,644,700명으로 지적장애는 221,557명, 자폐성 장애는 33,650명이며, 15개의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의 비율(45.0%)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는 증가(‘10년 7.0%→ ‘22년 9.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29세 이하 저 연령층에서는 발달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76.8%로 일과 시간의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5.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18.0%,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9.4%, 2시간미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0%이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가 68.5%로 가장 많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돌봄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자녀가 처음 발달장애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좌절감과 죄책감 등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무가치함, 우울, 수치심, 방어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이은진, 이상복, 2006).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놀라고, 잠자는 동안 악몽을 꾸거나, 특정한 상황이 떠오르는 등의 재경험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재경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되고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진단과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의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이 위기의 순간이자, 삶을 뒤흔들고 부정적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경험으로 볼 수 있다(박수경, 이선우, 배종필, 2019). 이처럼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받는 충격에 의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발달장애와 같이 심각한 중증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을 때 겪는 부모의 경험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있다(윤명숙, 박은아, 2011).

발달장애 자녀 출산에 따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발달장애 자녀에게 주어지는 낙인과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의 여가활동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선, 2019; 구본용, 2018; 김은정, 박재연, 2022). 자녀의 장애 진단의 충격과 함께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책임과 의무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며, 경제적, 심리·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김금희, 2019; 박재국, 정계숙, 서보순, 김은라, 2013).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에서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아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로가 많다. 특히 심한 경련이나 과잉 행동, 돌발 행동을 하는 자녀의 부모들은 체력 소모가 더 많고, 자녀가 자라면서 신체가 커지면서 육체적 고통이 더 커지게 된다(현경미, 강대옥, 2017). 이러한 신체적 측면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아, 2019).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52%가 우울증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들 부모는 회피와 심리적 갈등, 불안, 인생을 패배했다는 인식과 함께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 편견 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게 된다(김경아,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가 경험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부담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모든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것만은 아니며 일부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Hastings & Taunt, 2002).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자녀의 성장과 양육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와 가족도 함께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을 때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01). 이러한 현상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미숙, 2013). 그러므로 사회와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끊임없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긴장된 환경과 위기 적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처하기 위한 기제로서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할 수 있는 기제인 탄력성(resilience)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하는 개인적 차원의 자아탄력성, 가족이나 가정의 환경, 구성원들 간의 지지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적 차원의 가족탄력성,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는 부모의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서비스 등의 지역 사회적 차원의 지역사회탄력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성, 정서적 안정성 등 적응과 관련되어 형성된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인 우울,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선, 2012; 박춘희, 이지연, 2012). 신재은, 오인수(2017)는 자아탄력성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호 요인이며, 고유나(2016)는 자아탄력성이 부정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우울,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주화, 정현희, 2021).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통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이영애, 2018), 낮은 자아통합감이 우울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이지현, 양수진, 20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자아탄력성을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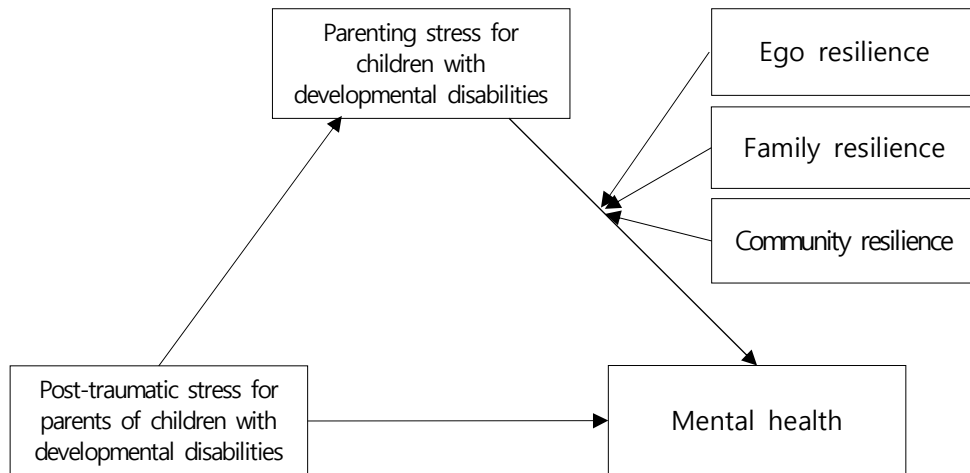
둘째, 가족탄력성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이 다른 도움 없이 가족 스스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자원과 역량이 강화되어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한다(조미경, 2011). 어떤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로 인하여 오히려 가족들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강화되고 자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향상되기도 한다(Singer & Irvin, 1991). 가족 구성원의 장애 판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결속하고 친밀해지는 현상은 가족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호요인(오주화, 정현희, 2021)이며,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윤명숙, 이효선, 2012). 김미옥(2001)은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정신건강의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과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잘 적응하며 자녀에게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조미경, 2011)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아, 양지훈(2016)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가족응집성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김영미, 201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통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8). 이에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중된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탄력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과 결핍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을 말한다(Kulig et al., 2008).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여겼으나 근래에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회통합을 모토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찬인, 양정빈, 2010).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여러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지역사회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경제적 불안감을 덜 느끼고, 가족 관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게 나타났다(박찬인, 양정빈, 2010). 또한 지역사회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 애정과 관심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순태, 강승미, 2018). 발달장애부모와 관련하여 지역사회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지만,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박지유, 염동문, 2021), 홍석기(2019)의 연구에서 지역사회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문희정 외(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탄력성이 발달장애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조절된 매개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후, 심

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내포된 매개효과모형, 조절효과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Figure 1)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모형을 통해 첫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특성 중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를 조절하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을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발달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 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탄력성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특성상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외부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아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조사대상자는 유목적적인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가 발달재활서비스 상담 기관과 경북장애인부모회에 협조를 얻어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직접 대면하여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세 이하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거주 지역은 경상북도에 있는 G시, P시, M시 등 대도시와 C군, U군 지역 등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300명을 설문 조사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297부를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진실하고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2. 연구 도구

1)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Foa 등(1997)이 개발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를 남보라 외(2010)가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후 타당화 한 PDS-K(Psychometric Quali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Diagnosis Scale)를 사용하였다. PDS-K는 총 17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 재경험, 회피, 과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재경험에 관한 5문항과 과각성 반응에 관한 5문항, 회피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는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남보라 외, 2010).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남보라

외(2010)의 연구에서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4였다.

2) 정신건강 (KGHQ-20: 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Williams와 Goldberg(1991)가 개발하고 신선인(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일반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정신의료 전문가가 보다 간편하고 쉽게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최근 2-3주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나타내며, 20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일반 정신건강척도는 3가지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신선인(2001)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척도는 Carlson 등(2000)과 Miller(2001)가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김금희(2019)가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시간, 심리적 긴장, 에너지를 측정하였고, 총 18문항으로 시간에 관한 7문항, 심리적 긴장에 관한 5문항, 에너지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김금희, 2019). 4점 Likert식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금희(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 하기 위해 Kloh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박춘희와 이지연(2012)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용성(3문항), 낙관성(3문항), 감정 통제(3문항), 만족과 감사(3문항),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8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 까지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춘희와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5)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Boehm

외(2007)가 개발한 Building Res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의 도구와 김미옥(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가 인식하는 가족탄력성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장애, 만성질환, 부모의 이혼, 재혼, 죽음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척도는 가족탄력성의 특성을 묻는 가족 응집력, 역할 안정성, 가족자원에 관한 내용으로 4점 Likert 식 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탄력성

본 척도는 지역사회탄력성의 특성 도구로 Boehm, Wertlied, Bendori와 Fishman (2007)가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고, 도구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만들고 연구목적에 맞게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가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서비스 자원체계(10문항), 소외계층서비스(4문항), 정책의 신뢰성(6문항)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구의 형식은 1점에서 4점의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의 순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총 20문항 중 3개의 문항(6, 10, 14)은 역산채점 한다.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Amos 25.0, SPSS Process Macro v3.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둘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사용하였다.

넷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Process Macro v3.4를 활

용하여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결과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수,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매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경로 추정치, 임계율,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매개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parenting stress-mediated model

variable	→	variable	B	β	S.E.	C.R.	p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938	.753	.048	19.678	.000
post-traumatic stress	→	mental health	.305	.389	.050	6.127	.000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222	.352	.040	5.538	.000

<Table 1>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beta = .753$, $p < .001$)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beta = .389$, $p < .001$)와 양육 스트레스($\beta = .352$, $p < .001$)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beta = .389$), 양육 스트레스($\beta = .352$)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수,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양육 스트레스 매개모형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parenting stress-mediated model

variable	→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753	.753	
post-traumatic stress	→	mental health	.654	.389	.265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352	.352	

<Tabel 2>와 같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총효과(total effect)는 .75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대한 총효과는 .654,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대한 총효과는 .352로 관련변인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total effect = .654), 양육 스트레스(total effect = .35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Tabel 3> 과 같다.

<Table 3> Parenting Stress Mediation Model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Z	p
post-traumatic stress	→	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5.339	.000

<Tabel 3>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Z=5.339, $p<.001$)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1)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효과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을 같이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 <Table 5>, <Table 6>과 같다.

<Table 4> The modul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 ²	ΔR^2	F
step1	parenting stress (A)	.341	.029	.542	11.899***	.478	.478	134.649***
	ego resilience (B)	-.279	.047	-.269	-5.901***			
step2	A×B	-.010	.001	-.727	-9.572***	.602	.124	147.971***

** $p<.01$, *** $p<.001$

<Table 5> Modulating effect on family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 ²	ΔR^2	F
step1	parenting stress (A)	.337	.029	.536	11.633***	.478	.478	134.703***
	family resilience (B)	-.322	.054	-.272	-5.906***			
step2	A×B	-.009	.001	-.754	-7.018***	.553	.075	120.957***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Resilience

step	variable	B	SE	β	t	R ²	ΔR^2	F
step1	parenting stress (A)	.384	.028	.610	13.629***	.441	.441	115.916***
	community resilience (B)	-.139	.039	-.161	-3.599***			
step2	A×B	-.006	.001	-.431	-5.139***	.487	.046	92.761***

** $p < .01$, *** $p < .001$

<Table 4, 5, 6>과 같이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t = -9.572$, $p < .001$),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t = -7.018$, $p < .001$), 양육 스트레스와 지역사회탄력성($t = -5.139$, $p < .001$)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Table 7, 8, 9>와 같다.

조절변인(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결과는 <Table 7, 8, 9>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 하한치와 신뢰구간 상한치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평균일 때의 간접효과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을 때의 간접효과보다 크고,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은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낮을 때의 간접효과보다 작았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값이 증가하면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커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의 정도는 부모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Table 7> Modul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ego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80	.0034	-.0145	-.0009
-1SD	.2209	.0419	.1384	.3034
M	.1530	.0348	.0846	.2215
+1SD	.1191	.0371	.0461	.1921

<Table 8>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family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90	.0032	-.0154	-.0026
-1SD	.2188	.0397	.1407	.2968
M	.1710	.0367	.0988	.2431
+1SD	.1232	.0398	.0447	.2016

<Table 9>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community resilience

구분	Effect(Index)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지수	-.0081	.0036	-.0150	-.0011
-1SD	.2587	.0417	.1767	.3407
M	.2069	.0383	.1316	.2822
+1SD	.1292	.0480	.0348	.2236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 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종합하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으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창출하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사이에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값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 평균, 높은 집단의 값이 달라 간접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수준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기는 정서적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이임숙, 2006)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이라는(신재은, 오인수, 2017) 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본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낮추는 보호요인이며,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우울, 스트레스와 적응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오주화, 정현희, 2021)는 연구와 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이영애, 2018)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나 대상과 변인들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겪는 가중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의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선별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각 지방단체 및 발달장애 관련기관에 보급해야 하며, 그 메뉴얼에 맞게 선별하여 서비스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자아탄력성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회기나 횟수를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상담지원은 부모역량 강화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는 평생 동안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상담의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기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복지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상담의 접근성과 다양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호요인이며(오주화, 정현희, 2021),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윤명숙, 이호선, 2012)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족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이 양육 스트레스를 낮춘다(조미경, 2011)는 연구와도 의미가 통한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김민아, 양지훈, 2016)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김영미(2012)의 연구에서 밝힌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통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박정현, 이미숙, 2018) 연구와도 의미가 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 창출하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나쁘게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은 가족탄력성이 낮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부모와 가족을 상담하는 기관에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비치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측정 결과에 따라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선별하여 긍정적인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과 가족이해 상담 등에 대한 회기와 방법을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에서 가족이 발달장애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을 알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캠프나 프로그램 진행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이 다르므로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이 비슷한 가족끼리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가족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탄력성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정신건강의 문제가 높아질 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정서적 안정감도 높다(박찬인, 양정빈, 2010)는 연구와 일치

한다. 또한 정서적 애정과 관심 및 정보제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김교연, 2009; 박주연, 2011; 안순태, 강승미, 2018)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감소 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박지유, 엄동문, 2021)는 연구와 지역사회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홍석기, 2019)는 것과 맥을 같이 하나 지역사회탄력성을 수준에 따라 연구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의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문희정, 심기선, 안현의, 주혜선, 2018)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나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이 줄어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확장하며, 부모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숫자도 지금보다 확대하여야 하고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기관과 구분되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은 있으나 아직 미비하며, 더욱이 발달장애 자녀 부모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는 센터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 부모만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기관의 미비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더욱 지원이 되길 바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상담지원사업인 부모역량강화서비스가 재활 바우처 서비스기관에서만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가 상담을 받기 위해 재활 바우처 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되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는 센터를 늘리고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지원하는 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외부에 자녀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노출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 가족을 발굴하고 그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 자녀들을 주간에 보호해주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그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으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하는 곳은 적어 받는 서비스에 질이 떨어져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보내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상태를 골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어떤 주간보호센터는 쓰리아웃제가 있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돌발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이 3번 일어나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결국 중증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발달장애 자녀는 제대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달장애 자녀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

는 주간보호센터의 수를 늘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의 지역사회 탄력성을 높이려면 발달장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노출하기 힘든 부모에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것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표집 상 어려움으로 경북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어있는 분이 다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발달장애 자녀 부모 중 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부모회에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발달장애 자녀 부모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S. T., and Kang, S. M. (2018). Stress and personal resilience i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2), 209-238.
- [안순태 강승미. (201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개인적 탄력성(resilience).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2), 209-238.]
- Boehm, D., Wertlied, R., Bendori, J., & Fishman. J. (2007). *Building re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 Action Research to Guide Community-based Programs*. Posted International Qualitative Research Annual Meeting.
- Carlson, D. S., Kacmar, K.M. & Williams, L. J.(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acational Behavior, 5*(2), 249-276.
- Cho, M. K. (2011).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Perceived by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Parenting Effica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Social Science Research, 2*(1), 323-347.
- [조미경 (2011). 취학전 장애아동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27(1), 323-34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oa, E. B., Cafhman, L., Jaycos, L., & Perry, K. (1997).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445-451.
- Hastings, R. P., & Taunt, H. M. (2002). Positive perception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7, 116-127.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NY: Guilford Press.
- Hyun, K. M., and Kang, D. O. (2017). The effect of father's perceived parenting participation by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family life. *Special Children's Education Research*, 19(3), 119-139.
- [현경미, 강대옥 (2017). 장애자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9(3), 119-139.]
- Hong, S. K. (2019).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Relations and Teacher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 Leadership and Teacher Satisfactio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Education Society*, 19(20), 277-298.
- [홍석기 (2019). 교장 지도성과 교직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계와 교사 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20), 277-298.]
- Jang, Y. O., and Jeong, S. R. (2012). Effect of family and occupation-related variables on work-family transfer among working housewives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ome Management*, 30(5), 75-88
- [장윤옥, 정서린 (2012). 가족 및 직업관련 변수가 유자녀 취업주부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75-88]
- Kim, K. A. (2019).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mental health and mental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ul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tenacity*. Yongmu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doctoral thesis.
- [김경아 (2019).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강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im, E. J., Park, J. Y.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ing Experience of Primary Caregiv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the Age of COVID-19.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3, No. 1, pp. 1-32.
- [김은정, 박재연 (2022).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주 양육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1). 1-32.]
- Kim, K. Y.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ived caregiving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 (3), 81-107.
- [김교연 (2009). 지적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돌봄 통제감 및 우울: 장애인 생애주기의 영향에 관한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81-107.]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171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 Kim, K.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family support-*. Seoul Hanyou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 [김금희 (2019). **발달장애자녀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가족지지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M. A., and Yang, J. H.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ork type. *Korean Society for Family Relations*, 20(4), 157-172.
- [김민아, 양지훈 (2016). 자아존중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와 근로 유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20(4), 157-172.]
- Kim, M. O. (2001).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social abil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 [김미옥 (2001). **발달장애자녀가족의 적응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Family Resilience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im, Y. M (2012). The effect of daily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Korean Youth Welfare Society*, 14(3), 47-73.
- [김영미 (201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3), 47-73.]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2.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20). *A Study on the Work and Life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eoul: Kore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개발원.]
- Koo, B. Y.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marital communicat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on life satisfaction. *Youth Studies*, 25(6), 397-422.
- [구본용 (2018).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부 의사소통 및 장애수용이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6), 397-422.]
- Ko, Y. N. (2016).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experience on depression and anxiety level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modul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Korean Youth Welfare Society*, 18(1), 105-132.
- [고유나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8(1), 105-132.]
- Kulig, J. C., Edge, D. S., & Joyce. B. (2008).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y in Rural Communities Through Multimethod Research.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3(3): 77-94.

- Lee, E. J., and Lee, S. B. (2006). Effect of self-growth and group art therapy 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45(2), 197-220.
[이은진, 이상복 (2006).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2), 197-220.]
- Lee, H. N., Jung, H. J., Lee, K. H., and Lee, H.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ilience, happiness, and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in college students. *Counseling Research*, 7(3), 701-713.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7(3), 701-713.]
- Lee, I. S. (2022). Lee In-suk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mental health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community resilience*. Doctorate degree at Daegu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이인숙 (2022).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구대일반대학원 박사학위.]
- Lee, I.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A verification of the modul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A doctoral thesis at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이임숙 (2006).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Lee, I. H. (2014). "Easy 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Academy』.
[이일현 (2014). "Easy 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Lee, J. H., and Yang, S. J.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ntegration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2(4), 151-169.
[이지현, 양수진 (2019).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4), 151-169.]
- Lee, K. O., Song, Y. S., and Kim, Y. J. (2011). A cognitive study of resilience-(infant, family, commun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hildren's Education*, 20(1), 181-196.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탄력성-(유아, 가족, 지역사회)에 관한 인식 연구. *아동교육*, 20(1), 181-196.]
- Lee, Y. A. (2018). The effects of abuse experiences,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school adjustment in late school-age children: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Youth Counseling Research*, 20(1), 277-297.
[이영애 (2018).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277-29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The life of disabled people through statistics. Seoul: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173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2022).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서울: 보건복지부.]

- Miller, W. A. (2001).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for Male and Female Executives: An Analysis of Different Spillover Process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oon, H. J., Shim, K. S., Ahn, H. E., and Joo, H. S. (2018).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Trust through Community Attachment in the Restoration of Adolescents' Feeling of Safety after Disaster -Preliminary Study Focusing on Gyeongju Earthquake-. *Crisi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14(5). 56-76.
- [문희정, 심기선, 안현의, 주혜선(2018). 재난 후 청소년의 안전감 회복 과정에서 지역사회 애착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경주 지진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14(5). 56-76.]
- Nam, B. R., Kwon, H. I., and Kwon, J. H.(2010).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9(1), 14-167.
-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 (2010).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29(1), 14-167.]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6). A Guide to Parenting Infants with Disabilities Volume 1 -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en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san, Chungcheongnam-do: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 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제1권-발달장애(양육지식 및 정보).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Oh, J. H., and Jung, H. H. (2021). The effect of military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military life adaptation of soldier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Youth Culture Forum*, 68, 33-58.
- [오주화, 정현희 (2021).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8, 33-58.]
- Park, A. S.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Welfare*, 64(1), 225-247.
- [박애선 (2012).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4(1), 225-247.]
- Park, A. S. (201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fancy. *Counseling Psychological Education Welfare*, 6, 93-103.
- [박애선 (2019). 유아기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6, 93-103.]
- Park, C. H., and Lee, J. Y.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silience Scale for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ing Studies*, 13(2), 479-504.
- [박춘희, 이지연 (2012). 장애학생 부모의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2), 479-504.]

- Park, C. Y., and Yang, J. B. (2010). Factors influencing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from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Parent Education Research*, 1(2), 41-65.
[박찬인, 양정빈 (2010).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교육연구**, 7(2), 41-65.]
- Park, J. K., Jeong, G. S., Seo, B. R., and Kim, E. R. (2013). Awareness of the happin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4(2), 199-223.
[박재국, 정계숙, 서보순, 김은라 (2013).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2), 199-223.]
- Park, J. H., and Lee, M. S.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regulated by family inter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cy children. *Home and Quality of Life Society*, 5(1), 159.
[박정현, 이미숙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정과 삶의질학회**, 5(1), 159.]
- Park, J. Y. (2011).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rk, J. Y., and Yeom, D. M. (2021).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level of life supporters in customized care for the elderly on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ocial Welfare Policy Practice Association*. 1(1). 97-136
[박지유, 염동문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감정노동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7(1). 97-136]
- Park, S. K., Bae, J. P., Han, S. E., and Kim, S. M. (2018). The effect of parenting burde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ul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8(12), 579-594.
[박수경, 배종필, 한세은, 김소민 (2018).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8(12), 579-594.]
- Park, S. K., Lee, S. W., and Bae, J. P. (2019). The effect of workplace-family conflict of low-wage female workers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job stress. Verification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8(5). 241-255.
[박수경, 이선우, 배종필 (2019).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5). 241-255.]
- Shin, M. S. (2013). *A study on the functional level of mentally disabled and the lif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Parenting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175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go,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ies

satisfaction of housewiv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신미숙 (2013). **정신장애인 기능 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hin, S. I.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Mental Health Scale (K-GHQ) I: Focusing on KGHQ-20 and KGHQ-30.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46, 210-235.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Shin, I. S. (2015).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happines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yungse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신인수 (2015). **발달장애자녀부모의 행복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hin, J. E., and Oh, I. S.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mental health in teachers.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48(1), 1-27.

[신재은, 오인수 (2017). 교사 대상 폭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교육과학연구**, 48(1), 1-27.]

Singer, G. H. S., & Irvin, L. K. (1991). Supporting familie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Emerging findings, practices, and questions. In L. H. Meyer, C. A. Peck, & L. Brown (Eds.), *Critical issu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 271-312).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Yoon, M. S., and Kim, N. H. (2016).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in married adults. Association of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on Alcohol and Health Behavior* 17(1), 1-17.

[윤명숙, 김남희 (2016). 기혼성인의 결혼 불만족과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7(1), 1-17.]

Yoon, M. S., and Park, E. A. (2011). A study of post-traumatic growth-related factors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9(29), 61 -89.

[윤명숙, 박은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29), 61 -89.]

Yoon, M. S., and Lee, H. S. (2012).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Youth Studies*, 19(3), 10

[윤명숙, 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

<국문 초록>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인 숙 · 박 재 연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65세 이하의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SPSS 25.0, Amos 25.0, SPSS Process Macro v3.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적 함의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 자녀 부모,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 조절된 매개효과

논문 접수(Received): 2022.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6. 20.